

주도주 공백에 증발한 거래대금... 투자자들 관망세 '지속'

국내증시 리스크 부각 등으로 위축
기준금리 인상 등 조바심 높아져
IPO 대어 출현에 장회복세 가능성

국내증시에서 주도주가 사라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고 지수도 약
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 우
려와 연휴 이후 예정된 3분기 실적 시
즌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투자자
들의 관망적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
여진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국
내 증시의 거래대금은 15조3000억원
으로 전 거래일(17조3000억원)보다 2
조 가량 줄어들었다. 지난달 일평균 거
래대금이 22조9500억원이었고, 22일
21조3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테마주 열풍으로 '빛투(빛내서 투
자)'가 급증하며 늘어났던 신용거래잔
고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증가
세가 잠시 주춤했던 신용거래 용자는
8월 들어 다시 20조원대로 진입하더
니, 17일에는 20조5500억원을 기록했
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9월에 들어
서는 20조1000억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달 21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규모는
20조2300억원이다.

과열된 열기로 우려를 샀던 국내 증
시는 주도주 실종과 함께 급격한 약세
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FOMC)가 매파적인 태도
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조바심도 높아졌다. 다만 증권가에서
는 연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가



코스피가 전 거래일(2514.97)보다 6.84포인트(0.27%) 내린 2508.13에 장을 마친 2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0.68)보
다 3.33포인트(0.39%) 하락한 857.35에 거래를 종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9.7원)보다 2.9원 떨어진 1336.8원에 마감했다. /뉴스스

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
에도 국내 증시에 다양한 리스크가 부
각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
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은 9월 미국의 금리동
결 이후 추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제민 한국투자
증권 연구원은 "근원물가 중심의 디스
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
상되고,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가 나타
나고 있다"며 "매파적 동결로 인해 예
상되는 장기금리 상승은 실물경기과
금융여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
성을 낮추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증시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8일
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
식시장도 내달 3일까지 4거래일간 휴
장한다. 국내 증시가 활기를 잃은 상태
에서 장기 휴장까지 더해지면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언급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유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
국 수출입,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 3분기 실적 시즌 등 중요
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4
거래일 간 휴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의 관망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
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9월 FOMC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더라도, 주가가
가격 부담을 털어낸 상황에서 실적 시
즌을 맞이한다는 것은 10월 전체를 놓
고 보면 긍정적인 공산이 크다"고 부
연했다.

상반기 부진했던 기업공개(IPO) 시
장의 대어 출현도 장회복세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원은 "IPO 시장
이 활발할 때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연휴 이후 두산
로보틱스 등 대어들의 상장이 진행된
다면 기대감이 다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세'

재건축이 상승 추세 주도 전망
매수심리 일주일만에 하락세

최근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재건
축 주도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8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던 매수심리는 일주일 만
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8일 기
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3%) 대비 0.12%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셋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
승 전환돼 18주 연속 오름세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성동구
(0.19%→0.20%)가 금호·응봉동 역세
권 선호 단지, 동대문구(0.16%→0.
20%)는 답십리·장안동 대단지, 중구
(0.18%→0.17%)는 신당·황학동 중소
형 평형, 용산구(0.18%→0.17%)는 이
촌·한남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0.18%→0.
15%)가 목·신정동 신축, 영등포구

(0.15%→0.14%)가 여의도·신길동 위
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동남권의 경우 송파구(0.24%→0.
24%)는 잠실·신천동, 강동구(0.21%→
0.18%)는 암사·강일·고덕동 대단지,
강남구(0.20%→0.16%)는 대치·개포
동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오름
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
며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로 매수 문
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
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 6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58㎡가 7
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매매가격
(6억2500만원) 대비 7500만원 상승했
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
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24억3000
만원에 거래됐다.

/김대환 기자 kdh@

이달 마지막주 전국 '5194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보문센트럴아이파크 등 청약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5194가구(일반분양 4027가구)가 분양
을 시작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성
북구 보문동1가 '보문센트럴아이파
크', 서울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센트럴씨엘', 전남 장성군 진원면
'첨단제일풍경재' 등이 청약을 진행한
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주에는 건
북주택 오픈 단지가 전무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원에 보문제5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
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7
층, 2개동, 총 199가구 규모로 조성되



힐스테이트 관악센트럴씨엘 조감도. /현대건설

며, 이 중 전용면적 76·81㎡, 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역 환승역인 보문역이 바로
앞에 위치했다. 동신초, 안암초, 용문
중·고, 경동고 등을 도보로 이용가능하
다.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대학
병원, 전통시장 등도 가깝다.

/김대환 기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6개월 '특별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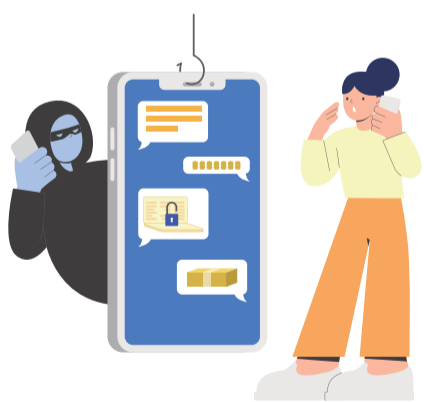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 모집
기준 '피싱' 범죄와 수법 유사
원금보장·고수익 등 악용 사례

#A씨는 한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미 A씨의 이
름을 알고 있었고, 주식리딩을 받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손실을
달려와 같은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
로 주겠다고 했다.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계좌번
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주고
전달했다. 범인들은 A씨 명의로 카드
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고는 잠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6개월간 투
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투자리딩방이란 전화나 사화관계망
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
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
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
장이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접근한다
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으로
만든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국가수는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했으며,
지난달에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
을 체결한 바 있다.

범행 수법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
다. 범인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와 함
께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
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는 명
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
'피싱' 범죄와 유사한 수법도 이용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
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
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
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

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가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
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
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고
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
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
이다.

국가수 관계자는 "그간 전화 금융사
기 범죄에서 비대면과 온라인, 대포물
건, 초국경 등이 특징이었는데 최근 범
죄는 모두 이런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
다"며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
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이나 고
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
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
법"이라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
자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미건설 '울산 다운2지구' 내달 분양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우미건설이 다음달 울산광역시 울
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서 '울
산 다운2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은 다운2지
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43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
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
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는 것이 특
징이다.

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공
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
2000여 가구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단지는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
다. 도보권에 유치원·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다. 남측으로는 근린
공원이 예정돼 있다. 문화재발굴조사
구역 지정으로 인한 문화재발굴관과
역사문화공원의 조성도 추가로 확정되
면서 주거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김대환 기자